생애구강관리, 치료하는 치과에서 지켜주는 치과로

정림탑치과, BDPG
강현민

배경:
초고령사회인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평생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, 구강질환(치아우식·치주질환 등)은 만성·비감염성질환(NCD)으로서 전 생애적 예방·관리가 요구된다.

목적:
기존 '치료 중심' 진료를 넘어 예방·유지형 '지켜주는 치과'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생애구강관리(Lifelong Oral Care, Loral Care®) 개념을 제시하고,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.

내용 및 방법:
1. 핵심 축 – 세균관리(자가 관리 + 전문가 관리)와 힘(교합)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.
GBT(Guided Biofilm Therapy)·PTC(Professional Tooth Cleaning)·교합안정장치 등 최신 임상 기법을 포스터에 시각 자료로 제시하였다.
2. 5가지 체계 – 대상(Population), 주체(Professionals), 원칙(Principles: 예방·지속성·개인맞춤형), 영역(Parameters: 세균·힘 + 전신질환·생활습관), 방법(Processes: 교육·경험·치유·관리·재활)으로 구조화하여 실행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.
3. 임상사례 – 청소년·장년 환자 각 1례를 통해 ①주기적 평가와 맞춤형 칫솔질 교육, ②생활습관 개선의 효과를 정성적으로 보고하였다.

결과:
세균관리와 교합관리의 동시 수행은 치아 균열·파절, 치주염 진행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치아 보존율 향상에 기여한다. 치과의사-치과위생사 협진 모델은 지속적 동기부여 및 환자 순응도를 높여 예방 효과를 강화한다.

결론:
생애구강관리는 초고령사회에서 구강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존엄을 지키는 전략적 접근이다. 향후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임상 지표(치아 상실률, OHRQoL 등)의 장기 추적이 필요하다.

주요어: 생애구강관리, 예방치의학, 세균관리, 힘(교합)의 균형, 비감염성질환(NCD), PTC, GBT.